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삿뜨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잼'과 '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해피 보름, 간달프

20160042 구인용

백석을 읽었다. 언제나 새로운 시인을 만나는 것은 두근대는 일이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인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 유난히 기대가 컸다. 중간고사 공부는 하기 싫고, 연휴는 긴 까닭에 조금 더 찬찬히 읽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본 에세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작성되었다. 미리 과제를 할 생각은 없었으나, 황금빛 눈밭으로 둘러싸인 이 황량한 시골 집에선 달리 할 것이 없는 까닭이었다.

그런 배경으로 시집을 완독한 소감은, 백석의 시는 정말 한가위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마다 빼곡한 가족들로 조용할 틈 없는 잔치판 속에서 고독을 읊조리는 백석의 관조적인 시선을 따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시집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그만의 독보적인 색채와 담백한 표현 덕분에 나는 그가 전하는 쓸쓸함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얗다’는 표현일 것이다. 정말 대부분의 시에서 ‘하이얀’, ‘흰’ 등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눈이나 달 같은 환한 대상을 들여와 백석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나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표현의 ‘절제’이다. 앞에서 나는 ‘그만의 독보적인 색채’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의 글은 무채색에 가깝다. 채도를 포기한 그의 글은 오디오 없는 흑백영화처럼 독자를 차분히 그의 독백에 집중하게 만든다. 잠시 외로움에 대한 사적인 감상을 풀어보자면, 언 땅에는 어떤 것도 쉬이 박히지 않는 것처럼, 짙은 외로움은 외려 ‘사무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관점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사람을 과묵하게 만든다. 백석은 시에서 절절하게 고독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담담히, 어떤 목적이 없는 것 같은 독백을 풀어낸다. 그것이 백석은 분명 외로움에 펜을 들었던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흰 밤”을 살펴보자. *‘옛뎡의 돌담에 달이 올랐다 / 묵은 초가지붕에 박이 / 또 하나 달같이 하이얗게 빛난다 /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과부 하나가 묵을 때여 죽은 밤도 이러한 밤이었다’* 마지막 행이 등장하기 전까지 “흰 밤”은 제법 평화로운 분위기로 진행된다. 이 고즈넉한 풍경에서 백석은 자살한 과부를 떠올린다. 김소월이었다면 입을 그리워하는 과부의 애틋한 사랑을 박에 빚대어 아름답게 표현하겠지만, 백석은 무심한 한 문장으로 어느 밤의 아름다움과 한 인간의 괴로움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둘째는 다시 그 절제를 통해 선택한 색이 하필 ‘흰 색’이라는 것이다. 보통 고독함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어둠을 떠올린다. 아무래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는 혼자임을 새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백석은 역설적으로 사방이 흰 색으로 가득한 풍경 속에서도 사람이 더 고독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은 아마 눈 내리는 황량한 이북 땅에서 살며 그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실일 것이다. 아무튼, 백석의 이미지를 사용한 덕분에 백석의 글은 어둡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글은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느낌은 없다. 그렇다고 그의 글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분명한 깊이와 침착함은 유지하면서, ‘쓸쓸함’이라는 정서 자체만을 선명하게 표현한다. 자칫 무겁고 불편할 수 있는 정서를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재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다.

백석은 자신의 고독을 ‘인정’한다. 전문 인용한 시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도 드러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자신을 이해한다. 덕분에 외로움은 어떤 슬픔으로 작용할지 언정,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되지는 않는다. 확고한 자아가 고독함을 좌절로 연결 짓지 않고,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덕분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 세상 같은 건 터러워 버리는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내가 백석이 표현하는 쓸쓸함은 어떤 경지를 넘어서, 심지어 ‘초월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분명 여심을 홀리는 매력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 부분이다.

백석의 글을 분석하는데 “白”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몇 단락을 쓰다 보니, 글을 구성하는데 “石”이라는 키워드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든다. 그러면 제목도 “이름값 하는 시인, 백석”이 따위로 지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집을 읽는 내내 그를 차가운 무생물에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달관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이지만 냉소적이지 않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며 자신의 슬픔에 둔감해지지 않는, 눈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았다. “고향”이라는 시에서 아버지를 아는 의원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모습이나, “수라”라는 시에서 거미 몇 마리를 방문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그들에게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유독 그러했다.

그가 쓰는 어휘에서도 사람 냄새가 났다. 들뜬들뜬 다문다문 등장하는 ‘아룻동리’나, ‘보득지근한’ 같은 평안 방언이나 옛 우리말이 그랬다. 우리말의 신기한 특징 중 하나는 처음 접하는 단어일지라도 그 어감에서 웬지 뜻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 묘사하는 북방의 삶은 현장감이 있었다. 흙과 바람 냄새가 났다. 백석은 ‘쓸쓸함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가’를 넘어서, 고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아직도 생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박완서가 “작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던가, 나도 우리말과 식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잘 알아 맛깔나게 쓰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의 특징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가 바로 앞에 전문 인용한 “흰 바람벽이 있어”이다.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다. 어머니는 늙은 몸을 이끌고 추운 겨울 고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 사실 이토록 직접적으로 시인이 자신의 외로움의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드문 일이지는 하다. 앞서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쓸쓸함을 어필할 사람 조차 없으니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몇 안되게 자신을 직접 위로하는 글이었는데,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후략)’ 이 부분이 그 위로가 아닌 듯 싶다. 술을 찾으려, 하늘이 자신을 귀히 여기어 자신이 쓸쓸한 것이라고 위로하는 모습이 유독 공감이 되었다. 미학적으로 우수한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작가가 진솔한 자세로 의도한 바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글임에는 분명하여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지향하는 유형의 글이다.

사실 또 선정 시의 후보로 올랐던 시가 있었다. “두보나 이백 같이”는 정월 보름에 홀로 명절을 보내는 백석이 자신의 쓸쓸함을 토로하는 시이다. 마침 한가위 민족 대명절에 읽게 되어 감회가 남다른 글이었는데, 이 순간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채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연휴를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두보나 이백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을까, 괜히 혼자만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이 웬지 처지는 글이었다.

그는 프랑시스 쥘, 도연명과 마리아 릴케에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두보와 이백에 대입한다. 나는 그가 내가 아는 한 시인과도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백색의 마법사, 간달프이다. (으) 삶 전체를 방랑하며 고독을 벗삼았던 백색의 마법사. 누구보다 인간(엄밀히는 호빗)을 사랑했던 간달프는 내가 최고로 아끼는 가상 인물이기도 하다. 판타지 소설의 인물을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지만, 웬지 백석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발상이었다.

잠시 산책을 나가야겠다. 비록 정월 보름은 아니지만 추석의 달은 넉넉하고 좋을 것이다. 하얀 달을 보며, 조금 쌀쌀하진 논두렁을 걷는다. “언젠가 북녘의 천재 시인 하나가 떡국을 얻어먹으려 쓸쓸한 발걸음을 옮겼던 밤도 이러한 밤이었다.”

해피 보름, 간달프.